



2026 VISION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성경이야기

친구들, 누군가 나에 대해 사실이 아닌 말을 하거나 심한 말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똑같이 말해 줄 거야!” 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특히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놀림을 받거나 욕을 들으면 참기가 더 어려워요. 오늘 다윗도 아주 힘든 순간에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왕궁을 떠나 도망가고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무척 지쳐 있었지요. 그때 시바가 다윗을 만나 먹을 것을 가져다주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길을 가자 이번에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심한 말을 하며 저주했고, 돌을 던지고 먼지까지 날렸어요. 다윗의 신하 아비새는 화가 나서 당장 시므이를 혼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러지 못하게 했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시므이의 말이 모두 옳아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이 직접 복수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바르게 판단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라고 말했어요. 힘들고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바로 화내고 똑같이 갚아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아요. 하나님은 내가 들은 말도, 내가 흘린 눈물도 모두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에는 화가 나는 순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아요!

함께 외쳐볼까요? “억울할 때 하나님께 맡겨요!”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예배순서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다 같 이

말 씬 봉 독 사무엘하 16:1~14절 다 같 이

설 교 억울할 때 하나님께 맡겨요 설 교 자

말 씬 나 눔 다 같 이

합 심 기 도 다 같 이

축 복 기 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 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상황을 알고 계셔서 감사해요.

다윗처럼 억울하고 화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세요.

내 마음대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친구와 가족에게 사랑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선택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을 때 아비새와 다윗은 각각 어떻게 반응했나요?
2.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억울하고 화가 날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